



제주해바라기센터 공금횡령 의혹… 경찰 수사

센터측 지난 10일 도청 보고… 11일 경찰 신고
경찰, 행정 관계자 A씨 공금횡령 혐의로 입건
“미납 기간·금액 등은 수사 결과 지켜봐야 결론”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국가 산하 기관에서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해바라기 센터 관계자 A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직원들의 보험료가 정상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센터 측이 인지하고, 지난 11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경

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06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제주한라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며 ‘원스톱지원센터’로 설립됐고, 이후 2015년 제주해바라기 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확대 운영됐다. 현재는 국비 70% 도비 30%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라병원

이 4자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센터 종사자는 간호사, 상담사, 심리치료사, 행정 직원 등 총 22명이다. 이중 5명은 제주경찰청에서 파견된 여성 경찰

관들로, 수사와 피해자 지원 등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횡령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달 초였다. 센터 측은 직원들의 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0일 제주도청에 구두로 이 사실을 보고했다.

운영 협약에 따라 센터는 사건·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시 도청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제주도청은 매년 1회 현장 방문을 통해 센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보고를 받은 도청은 내부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으며, 한라병원 측에는 자체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센터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직후 간단한 상황 파악만 한 뒤 즉시 도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돼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지도·감독을 이달 중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 금액과 횡령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회계 감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사업지구 조감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1~2년 늦어질듯 설계 적정성 검토·건축비 상승 따른 예산 증액 등 이유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과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와 건축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반영 등으로 2027년 예정이던 완공시점이 1~2년 가량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산 409억원을 투입해 건물 최고 높이 29.20m, 건축 면적 3147.27㎡(약 954평·전체 면적의 13% 수준), 연면적 1만5327.90㎡ 등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노후화 된 현재 건물을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제주동부 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난 15일자로 공고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제주동부경찰서와 시 건축과 및 일도2동·일도2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하지만 경찰이 당초 2027년 재건축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이 길어진데다 건축단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 등으로 1~2년 가량의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비가 계획 수립 당시보다 많이 올라 예산 증액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1988년 지어진 제주동부경찰서의 각종 시설을 노후화와 사무 공간 부족 등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재부의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연생태환경과 생활환경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과 설명회에 이어 오는 6월 평가서에 따른 심의가 예정돼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4회 우도소라축제’

오는 25~27일 천진항서

특산물인 뿔소라와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소라축제가 열린다.

제주시 우도면은 우도면연합청년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우도소라축제’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우도 천진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소라축제는 ‘2040 플라스틱ZERO 청정 우도’ 실현을 위해 축제장 내 향토음식점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바지오금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5일 개막하는 축제는 26일 오후 2시 우도봉 플로깅과 27일 오전 10시 마을안길 플로깅도 진행한다.

특히 우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26일 ‘우도의 밤’ 행사를 진행하는데,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향토음식점의 모든 메뉴를 무료 제공해 우도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공연도 선보일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대상

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첫 청구

제주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6일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A씨(91)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A씨는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타 지역에 거주중인 A씨는 희생

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청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합동수행단이 A씨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불법 구금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로써 4·3 당시 불법적인 일반재판에 회부돼 유타安康을 받고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생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금탁기자



이호해수욕장 점령한 미역 계속되는 강풍으로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면서 많은 양의 미역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으로 밀려오자 16일 오전 바다환경지킴이들이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벽 클린하우스서 불… 인명피해 없어

새벽시간대 제주시 한 클린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9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한 클린하우스에

서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인 오전 3시14분쯤 진압됐지만, 쓰레기수거함 및 의류수

거함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58만7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종이류 재활용 수거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ms@ihalla.com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원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트묘 보조사업 가능

감귤묘목

유	라	조	생	2~3년생
천	혜	향	3~5년생	3~5년생
황	금	향	3~5년생	3~6년생
한	라	봉	3~6년생	3~4년생
봉	엠	염	3년생	3년생
남	진	해	3년생	3년생
성	전	온	3년생	3년생
하	례	주	3년생	3년생
례	조	생	3년생	3년생
조	생	탐	3년생	3년생
탐	라	봉	3년생	3년생
원	터	프	린	3년생
감	진	스	평	3년생
진	탱	평	향	3년생
탱	자	묘	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전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론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체들과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출시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체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